



# 일개 신설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의 적응 경험

박형숙<sup>1)</sup> · 김경남<sup>2)</sup> · 강은희<sup>3)</sup> · 이전마<sup>4)</sup> · 박순미<sup>5)</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병원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므로 항상 복잡하고 다양하며 긴박한 상황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종합 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 다양한 직종의 의료요원들이 서로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3차 병원은 환자의 급증, 병원의 대형화, 치료 기술의 급속한 발달 등으로 인하여 직무의 환경과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서 병원 종사자로 하여금 심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과 긴장을 느끼게 하고 있다(Lee, 1997). 그런데 3차 종합병원급인 신설 대학교 병원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 병원을 꾸려나갈 직원들의 대부분이 신규직원들로 채워진다면, 기존의 3차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보다 실무에 적응하는데 있어 더 많은 복잡성이나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동일 직종이라도 다양한 병원 조직, 다양한 학력, 다양한 경력과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발전을 목적으로 직장을 옮겨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위에 맞는 경험이 부족하며,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고, 업무 통일이 되지 않아 의사결정에 있어 자주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Kim, 1997).

간호사는 병원조직을 구성하는 가장 규모가 큰 조직으로 병원 전체 인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병원조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Yang, 2006). 이에 인적자원 관리

중 병원의 가장 많은 전문 인력을 구성하고 있는 간호사의 인력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Anderson, Linden, Allen, & Gibbs, 2009).

그중에서도 중환자실 간호사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여러 다양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간호학 지식뿐 아니라 수준 높은 간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익힘이 절실하다. 그러나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중환자실 간호사는 다른 간호사에 비해 이직률이 높고, 특히 신설 대학교 병원의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들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팀에게도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신규 간호사의 적응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른 직원의 업무과중은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신규 간호사가 되받게 되는 스트레스 또한 가중된다고 하였다(Khoza, 2005). 그리고 신규 간호사는 막중한 업무의 적응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현실충격으로 이어져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역할을 익혀 능숙하게 적응하는데 최소 9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Son, Koh, Kim, & Moon, 2001). 따라서 실무경험 최소 1년 동안은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낮은 만족도와 부적응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조기 이직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Berg, 2002; Joung, 2007).

3차 종합병원급 신설 대학교 병원의 중환자실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는 신규 간호사들의 적응 경험은 기존 중환자실 신규간호사의 적응 경험과는 다를 것이므로, 신설 대학교 병원의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의 복잡하고 다양한 적응 경험

**주요어 :** 간호사, 중환자실, 적응, 질적 연구

1)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1 중환자실 간호사(교신저자 E-mail: fairycc@hanmail.net)

3)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 4)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간호부장, 5)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간호팀장

접수일: 2010년 12월 19일 1차 수정일: 2011년 2월 10일 2차 수정일: 2011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1년 2월 18일

에 관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의 긍정적인 역할 적응은 간호사 자신의 노력여부에도 책임이 있지만, 기능적이고 바람직한 조직 구성원으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하는 병원 체제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가 병원환경과 자신의 역할에 적응하는 시기에 그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에 대한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스트레스나 소진에 관한 연구(Berg, 2002; Park & Kim, 2010)와 중환자실 신규간호사와 경력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역할 갈등에 대한 비교연구(Joung, 2007),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 의도에 관한 연구(Yang, 2008) 등의 양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질적 연구로는 Yoon (2002)과 Hwang 등(2002)의 일반 신규 간호사의 임상 경험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중환자실의 환경과 일반 병동의 환경은 많이 다르므로 일반 병동 신규 간호사의 적응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Kim과 Kim (2005)의 신규 간호사의 프리셉터쉽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프리셉터쉽이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과 아닌 병원의 신규간호사의 임상경험에 대한 심층적 비교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으므로, 아직 프리셉터쉽이 형성되지 않은 신설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의 신규 간호사들의 적응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필요하다.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방법은 인간 경험을 기술하는 대상자의 실제에 접촉하는 총체적인 접근을 요구하므로 통합된 인간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인식되었다(Parse, 1981).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한 개인의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그 경험의 의미를 포함하여 구조, 즉 현상의 본질을 밝혀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상학적 연구(Shin et al., 2004)가 본 연구에 적합할 것 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신설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가 실무에 적응하면서 겪게 되는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본 연구를 통해 신설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가 당면하고 있는 제 문제를 확인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실무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설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들이 매일 근무하는 가운데 겪은 그들의 경험세계를 주관적이고 총체적으로 통찰, 발견,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어 신규

간호사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설명함으로써 신규 간호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제 문제를 확인하고 가능한 빠른 실무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신설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의 적응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 연구 방법

###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의 신규 간호사란 간호사면허 취득 후 처음 근무지로 해당 의료기관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중환자실로 발령을 받아 근무한지 1년 이내인 간호사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Y시에 설립된 1년 미만의 신설 대학교 병원의 중환자실로, 개원 이전부터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된 1년 미만의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참여자의 수는 심층면담 후 면담 자료의 분석을 통해 자료의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반복되는 개념이 나온(Shin et al., 2004) 수준인 6명이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미혼이었고, 성별은 여자 5명, 남자 1명, 평균 연령은 24.5세이며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 2명, 4년제 졸업 4명이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의 중환자실 경력은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첫 근무지였으며, 연구 대상자 모두가 9개월에서 11개월로 1년 미만이었다.

### 연구자 훈련과정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진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그 의미에 보다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훈련을 위하여 책임 연구자는 다수의 질적 연구를 게재한 경험이 있으며 공동 연구자들은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비롯한 전교과목을 수료 후 국내외 질적 연구의 석학들을 초빙한 질적 연구 학회에 참석하여 자료수집과 분석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여러 번의 질적 연구 포스터발표를 통해 연구의 숙련도와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개월간이었으며, 개방적인 질문 형태를 사용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연구자의 의도로 인한 응답을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심층면담은 참여자가 근무에 지장이 없는 편안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만났다. 심층

면담은 연구자 1인이 시행하였다. 면담장소는 주로 참여자의 근무기관 내 조용한 회의실이나 상담실에서 공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회당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을 진행한 연구자는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고, 평소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므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을 배려함으로써 신뢰감과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면담을 위한 질문은 ‘당신에게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중환자실 간호사로 적응해 가는 과정은 어떠하였습니까?’이며, 대화내용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내용을 녹음하였고, 심층면담을 실시한 연구자 1인과 다른 연구자들이 녹음된 자료를 반복 청취하여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필사하여 분석하였다.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시에는 추가로 면대면 면담을 시행하거나 전화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고,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과 상황이 기록된 현장 기록 노트를 참고 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진술 중 공통적인 의미진술이 발견되고 의미를 설명하는 기술들이 충분히 완성되어 더 이상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시점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 연구 수행에 따른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자료수집에 앞서 Y시 P대학교 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심의(심의 번호: 2009065)와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부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면담 내용을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익명성을 보장하며 연구도중 연구철회를 요구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서면화된 동의서를 받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심층 면담시 대화 내용에 대해 녹음을 실시할 것이고 녹음된 자료는 연구가 끝남과 동시에 폐기처분할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고, 녹음된 모든 자료는 컴퓨터에 저장하고 암호를 걸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 자료 분석 과정

본 연구는 신실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신규 간호사의 적응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살아있는 경험과 상호주관성, 본질적인 직관을 기본철학으로 출발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Colaizzi (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심리적 경험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경

험은 인식 하에 있으므로 지각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 개인적인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여 신실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의 적응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Colaizzi (1978)의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 가운데 공통적인 진술을 묶어 단계적으로 추상화 시켜나가는 방법으로, 참여자의 확인을 통해 검증의 과정을 거치므로 연구자의 의미 분석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Colaizzi (1978)의 분석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일상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심층면담 후 녹음해온 내용을 여러 차례에 걸쳐 들으면서 대상자의 진술 그대로를 글로 옮겨 기술하는 단계로 필사된 내용을 여러번 반복적으로 읽은 후 신실 대학교 병원 신규 간호사의 적응 경험에 대한 의미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경험자체를 순수한 기술로 인식하려고 노력하였고, 필사된 내용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다시 읽어보게 하여 연구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단계에서는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을 연구자들의 많은 논의를 거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로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는 단계로 연구자의 이론적인 편견이 참여자의 기술내용에 들어가지 않도록 괄호 치기를 하여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과 객관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기술로써 신실 대학교 병원 신규 간호사의 적응 경험에 대한 내용상 의미 있는 진술과 변화 있는 부분을 찾아 구분하여 추상적인 진술로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였다.

3단계에서는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 주제묶음, 범주를 조직하는 단계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의 의미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공통의 속성으로 묶여지도록 범주화 작업을 하였다. 의미 있는 진술인 52가지의 원자료에서 공통적인 속성끼리 모아서 15가지의 주제를 정해서 다시 13가지의 주제묶음으로 정하였으며, 다시 주제묶음의 속성들을 분류하여 6가지의 범주로 정하였다. 원자료와 주제, 주제묶음, 범주화는 일차적으로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비롯한 전교과목을 수료 한 박사생들과 책임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과 연구자들 간의 토의와 검토에 의해 이루어졌고 분석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읽어보게 하여 연구자의 분석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다.

4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확인된 범주화를 통해 신실 대학교 병원 신규 간호사의 적응

경험의 의미를 중심으로 본질적이고 총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생각한다.

###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Guba와 Lincoln (1989)이 제시한 네 가지 항목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및 중립성 등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괄호처리하면서, 연구자의 반응이 면담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고 가능한 답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의 분석에서 분석내용이 의미 있고 설득력이 있는지 연구 참여자에게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연구자들 간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분석결과의 적용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려고 노력하였고, 연구자들의 분석과정 동안 다년간 질적 연구에 대한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 1인으로 부터 연구 전반에 걸친 감사의 과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중립성은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을 확립하면 저절로 획득되는 것으로(Sandelowski, 1986) 본 연구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립을 위한 4가지

### 연구 결과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의 진술을 반복하여 읽으며 신설 대학교 병원의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의 적응 경험에 관해 간호학적 관점에서 의미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을 의미단위로 구분한 결과 16개의 주제에서 13가지의 주제묶음으로 최종적으로 6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Table 1).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한 신설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의 적응 경험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막함’, ‘선배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근무의 중압감’, ‘그만두고 싶은 심정’, ‘완성된 병원과 중환자실에 대한 애착심’, ‘동기들의 소중함’, ‘자기성장에 대한 자긍심’의 6가지 중심의미로 나타났다. 주제묶음에 따라 참여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

####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막함

- 새로운 시스템 익힘에 대한 불안감  
신설 대학교 병원이라 병원 시스템이 체계를 잡아나가는

Table 1.

Themes	Theme clusters	Category
There are a lot of changes in the hospital's systemization, so I worry that I will be the only one who can't keep up with the changes. I am afraid I can't care for my patients proficiently while adjusting to new systems of the hospital.	Anxiety about learning the new system	Endlessness of a new beginning
I am worried as to whether I can adapt to being a new nurses in the ICU.	Anxiety about the relationship building	
I've got a lot on my shoulders now that doctors ask for high-quality nursing skills. I am always afraid when I transfer my work to senior nurses.	Burden of workload	Pressure of work due to lack of senior nurses
I have trouble in making accurate judgements and handling ways of doing things.	The difficulty of decision making	
I am tired and everyday is difficult with extra duties, education after work, evaluation and so on.	Fatigued of everyday	Wanting to quit
There are a lot of conflicts because of inadequate performance and misunderstandings about other departments.	Conflict of frequent misunderstanding	
I lose my feeling of self-respect, because there is a tendency to despise and ignore new nurses.	Being ignored	
I feel affection for the building of hospital which is gradually becoming complete.	Affection about the hospital getting stabilized	Attachment for the complete hospital and ICU
I can feel energy surging from inside as I take my role here as a new nurse until the ICU is fully established.	Passion about new ICU	
I can take a firm stand because of colleagues in the same position.	Strength of colleagues	Preciousness of Colleagues
I thank my colleagues because they comfort me when things get tough.	Colleagues coming supportive of each other	
I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about work when I earn my wings and gain some good words. My self-esteem increases as I grow as an ICU nurse.	Achievement of work Self-esteem as an ICU Nurse	Pride in self-growth

과정이라 변화가 많았다. 환자 간호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이나 절차가 수시로 바뀌어 일을 하면서 자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바뀐 부분을 인지 못하고 일을 해서 실수를 하게 될까봐 불안해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전반적인 병원 체계의 불안정함 속에서 환자를 간호할 때 부담스럽고 막막하여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안정된 오래된 병원에 입사했다면 자신이 그 조직에 흡수되어 적응해나가면 되는 것이지만, 신설 대학교 병원이라 병원 자체도 변동도 많고 또 그 속에서의 새로운 시작이기에 불안감이 커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졌다.

“언젠가는 개원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지만, 곧 내일부터 우리 중환자실 문을 열고 환자를 보기 시작한다하니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환자가 우리 때문에 잘못되거나 하면 어쩌나 혹시 빠진 건 없는지 부담감이 매일 커졌어요.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착오가 없도록, 이제 곧 환자를 보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인데 이런 모든 시스템에 익숙할 수 있도록 모의 진료 시나리오를 보고 죽어라 환자 받는 연습을 했어요. 이래가 병원이 되겠나 싶었고, 막막하기도 하고요. 처음 개원해서 환자볼때, 데이 근무면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데 내가 환자를 받게 되면 어쩌하나 싶은 걱정이 돼서 잠도 못자고 뒤척거리다가 눈 빨개져서 출근한 적도 있었어요.”(참여자 1)

●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걱정

중환자실 내의 구성원들과 잘 적응하여 잘 지낼 수 있을지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걱정이 컸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다는 것과 신설 대학교 병원의 중환자실이라는 근무 환경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여러 병원에서 이직해온 경력직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같이 입사한 신규 간호사들과 함께 중환자실을 새로 만들어 나가야 하기에 자신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 대인관계를 맺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들을 토로하였다.

“사회생활의 첫 걸음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하는데 같이 일하는 동기들이나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도 많고 교수님이나 의사들도 다 새롭고 환자를 보는 것도 서툰데 너무 걱정이었어요. 잘 할 수 있을지.. (중략)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그 선생님이라 근무가 같을 땐 괜히 더 긴장되고.. 그런 선생님들한테 인계를 주거나 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죠.”(참여자)

선배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근무의 중압감

● 업무의 부담감

신설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신규 간호사들은 기본적인 업무도 업무가 미숙한데, 환자에게 침습적인 시술이나 검사 시 의사들이 다양한 고도의 간호기술을 요구하게 되어 근무 중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신규 간호사들을 지지해 줄 든든한 경력의 선배 간호사들의 부족으로 매 근무시마다 업무시 부담감이 높았다. 또한 자신이 보는 환자에게 부착되어 있는 의료 기구들을 능숙하게 조작하는 것이나 신규 간호사들이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 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근무 때 환자가 안 좋아질까봐 두려움에 시달렸다.

“중환자실에 처음 근무하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장비와 기구들이 부담이었어요. 능숙하게 환자에게 부착되어 있는 모니터도 잘 만져야하고 인공호흡기, 생명연동장비들. 정말 이런 거 익숙하게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게 미숙했어요. (중략) 정말 긴장이 되죠. 오늘 근무에 도와줄 간호사도 부족한데 제발.. 별일 없이 무사히 근무가 끝나길 기도하죠.”(참여자 5)

그리고 근무 시간에 힘들지만 나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도, 다음 근무 간호사들에게 인계할 때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며 자신이 근무 시에 일을 잘 했는지를 검사 받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어 부담감이 가중되었다.

“나이트 하고 수 선생님이나 책임 간호사 선생님 앞에서 전체 인계하기 직전에는 입까지 바짝바짝 마르고 말이 입에서 계속 헛 나와요. 휴..(한숨을 쉰다) 그래서 다 아는 의학용어도 못 읽겠고 입이 말라서 말도 잘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환자 파악 안 되고 정리도 안 된 채로 인계 주게 되고 그럼 또 다시 다음 번 간호사 선생님에게 혼나게 되고요. 휴.. 정말 부담스러워요. 한다고 하는데 계속 지적받게 되고 저도 고치려고 하는데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1)

● 의사결정의 어려움

간호 현장에서 우선순위를 결정 하는 것은 경력이 많은 간호사들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신설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1년 미만의 신규 간호사이어서, 경력 간호사로 이직을 한 경우에도 새 병원의 체계에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이었으므로 연구 참여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도움을 구하거나 의지할 사람이 부족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어려웠고 매 근무시마다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 커서 늘 긴장 되어있는 상태였다.

“일을 하다보면 환자가 올라가야 할 병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든지, 보호자가 안와 있다든지.. 그럴 때 혹은 새로 받아야 하는 수술 환자의 침대는 수술방으로 나가고 그러면 완전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죠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한꺼번에 터질 때, 뭘부터 손을 대야할 지 모르겠고 그리고 각의 사마다 환자를 보는 부분이 다 달라서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중략) 또 내 듀티 때 환자를 보면서 환자 심전도 모양이 변한다던지 환자가 혈압이 떨어진다던지 할 때 prn order를 어디까지 써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괜히 불안한 거죠 내가 판단한 내용이 맞는 건지. 이전에 차트도 찾아보고 환자의 증상을 보고 그 짧은 순간에 나름의 사정을 해서 결정을 내려서 노트를 할지, 그냥 있는 오더인 prn 투약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물어보거나 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참여자 3)

### 그만두고 싶은 심정

#### ● 일상의 피곤함

업무에 대한 미숙으로 일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식사할 시간도 나지 않아 식사를 못할 때도 많으며, 근무시간이 끝나도 간호기록이나 전산업무 못 했던 거 처리하느라 초과근무가 많아졌다. 병원 근무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삶의 여유가 없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날 이브닝이었는데 하루 종일 굶고 배고픈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새벽 2시 30분쯤에 마친 것 같아요 요즘 느끼는 건 앞이 안 보인다는 거요 그냥 하루하루 출근하면서 그냥 하루에 힘 다 쏟아 붓고 집에 가면 밥 먹고 자고 또 출근하고.. 그렇게 하루에 딱 세 가지만 하네요”(참여자 4)

근무 후에 각종 교육도 많고, 오프 때라도 신규 간호사를 위한 교육과 평가가 많아서 병원에 나와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거나 시험을 쳐야하는 등 쉬는 시간 없이 하루하루가 고되고 피곤하였다.

“신규 간호사가 많고 새 병원이라 그런지 여러 가지 교육이 많아요 근무가 있는 날도 당연히 근무 후에 교육이 있으면 들어야 되고요 오프 때라도 집에서 잠이라도 좀 푹 자고 싶는데 불려나오게 마련이죠”(참여자 6)

#### ● 잦은 오해로 인한 갈등

각 부서마다 신규 직원들이 많아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상태이므로 서로의 부서에 대한 이해는 더욱 부족하여 그로 인한 오해가 많았다. 신규 간호사들은 환자를 직접 보고 있는 입장에서 환자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원인을 찾

아서 빠른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급함이 있었으므로 오더를 낸 의사나 타부서와의 갈등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였다.

“환자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급하게 chest X-ray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응급 영상의학과로 전화를 했더니 지금 점심 또는 저녁 시간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없어서 늦게 올라가거나 못 올라간다고 말할 때 정말이지 황당할 따름이죠 나중에 오더 낸 의사가 사진 왜 빨리 안 찍었냐고 뭐라 뭐라 할텐데요 환자가 그동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빨리 원인을 찾아내서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우리만 발을 동동 구르게 되죠”(참여자 2)

#### ● 무시당하는 기분

각과 의사나 교수들은 신규 간호사가 자신의 환자를 보게 되면 신규 간호사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경력 간호사의 수가 적었지만 그 근무 내에서 신규 간호사 보다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찾았다. 선배 간호사들도 업무를 시작 할 때 신규 간호사가 많으면 짜증을 낸다거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 자신은 이곳에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 자존감이 많이 저하되었다. 자존감 저하로 지금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전방에 깔고 있었다.

“전화상으로 교수님이 오더낼 때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다른 윗 년차 선생님 바꾸라고 소리 지르고 ‘너 누구냐고 이름 물어보고 다음에는 아예 전화 받으면 쉬운 오더를 내면 서도 못 믿어하시고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바로 윗 년차 선생님 바꾸라고 하시고 완전 저를 무시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중략) 한숨 쉴 때 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나는 여기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마저 들고 정말이지 순간적으로 일하다가 중간에 뛰쳐나가고 싶다는 충동이 막 들거든요 처음 ICU를 지원할 때의 마음은 온데 간데 없고 첫 달부터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내 적성에 맞는 일일까, 고민을 시작해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참여자 1)

### 완성된 병원과 중환자실에 대한 애착심

#### ● 안정되어가는 병원에 대한 애정

넓은 대지에 건물 하나 완성하면서 병원을 개원했던 것이 얼마 안 되었고, 주변에 먼지를 휘날리며 다른 추가 건물들을 지어 올린던 공사판의 환경이었던 초기의 병원 모습과는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이 지어진 새 건물들과 외관상 차츰 완성되어 가는 신설 대학교 병원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힘들었지만 이 병원의 역사적인 시작에 자신이 함께 동참하였다는 사실에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병원에 간호사 모집공고가 나서 면접 보러 올 때 특이했던 건 아직 공사 현장이 많으니 구두를 신지 말고 운동화를 신고 면접 보러 오라고 공지되어 있었거든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화이바 쓰고 공사장에 아저씨들이랑 같이 지나다니고 했는데 그 동안 힘들고 어려웠고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병원의 역사적인 시작에 초기 멤버로 제가 있었다는 거. 이제 내가 이 병원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했다는 거에 뿌듯하고 애정이 많이 가요”(참여자 5)

● 새로운 중환자실에 대한 열정

병원의 외형들이 완성되어 감에 따라 중환자실내의 내부 환경들도 점차 안정화되어갔다. 업무 지침서와 장비 매뉴얼을 만들 때도 신규 간호사가 직접 참여하고, 새로운 중환자실 내에서 여러 업무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효율적인 업무흐름을 만들어 중환자실을 만들어 가는데 일원으로 한 몫을 하게 되어 함께 만든 중환자실이라는 생각에 남다른 애정을 갖게 되었다.

“아무것도 없었던 중환자실에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각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교육이 이어졌어요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설명서로 우리들이 나누어서 장비작동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렇게 중환자실 실무 지침서와 행정 지침서까지 만들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다 만들어 내야 했고 새로 시작해야 했어요 지금은 내손으로 만든 지침서니깐 애착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땐 정말 불안하고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우리 잘 하고 있는거 같아요 환자들도 많이 좋아지고 굴지에 전통 있는 중환자실에서 하는 만큼 어려운 중증 환자들도 다 우리가 받아서 좋은 성과를 내서 일반병동으로 보내요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력 간호사들도 적었지만 우리들이 빨리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한 결과인 것 같아요”(참여자 2)

동기들의 소중함

● 힘이 되는 동기들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시작하여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 신규 간호사에 대한 불신으로 무시를 당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견뎌 올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처지의 동기 간호사들이 서로 힘들 때마다 위로 해주어 그 힘으로

버틸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기들이 없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라며 동기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특히 우리병원은 신규가 워낙 많아서 동기들이 꽤 많죠 신규가 많아서 힘든 점도 많겠지만 병원을 같이 다닌다 생각을 해보면 동기들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버틸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1)

●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동기들

병원의 지리적 특성상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신규 간호사들이 많아서 1년 가까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병원 동기들은 서로에게 더 가깝게 느껴지고 어느덧 신규 간호사들에게 더욱 소중한 지지체계가 되어 있었다.

“환자 보는 거에 있어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동기들이랑 이야기 하고 나면 나도 사람 같고 진짜 우리가 병원 들어오기 전까지는 누군가한테 크게 혼날 일이 없었잖아요 스트레스를 풀어요 진짜 그냥 왕창 수다 떨어요 어쨌든 같이 들어왔어도 경험이 다르니까 자기가 본 환자 얘기하면서 이런 수술환자는 이렇게 보고... 등, 근무하면서 있었던 일 이야기 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스트레스를 날리죠”(참여자 3)

자기성장에 대한 자긍심

● 업무에 대한 성취감

못한다고 야단만 맞고 일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본 환자들이 좋아지고, 환자를 보는 능력이 예전보다 많이 발전된 것에 대해 환자들이나 주변 의사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수간호사나 책임 간호사에게서 근무 시 칭찬을 들음으로써 자신이 그만큼 성장했다고 느끼게 되고 업무에 대한 성취감이 생겼다.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환자의 왼쪽 폐에 무기폐가 왔었어요 제가 오전에 보았는데 오후에 chest X-ray를 다시 찍었는데 아침보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교수님도 사진 보시고 ‘훨씬 많이 좋아졌네’ 하시고(웃음) 늘 혼나기만 하던 내가 인정받는 것 같아서 대견스러웠어요 그리고 인공호흡기 이탈이 잘 안 되서 많이 고전 하던 환자를 계속 보게 되는 경우에, 제 근무때 extubation을 해서 환자가 다행히도 별탈 없이 숨을 잘 쉬는 걸 볼 때, 정말 아. 나도 이제 좀 할 수 있구나 싶고.. 환자들이 전실 갈 때 잘해줘서 고마웠다고 말해줄때 정말 자신감이 생기죠”(참여자 2)

● 중환자실 간호사로서의 자부심

연구 참여자들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초기엔 힘이 들었지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려움들을 잘 견뎌낸 것에 대한 대견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일반 병동 간호사들과는 달리 더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어떤 중환자들도 잘 간호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어 중환자실 간호사인 것이 자랑스러웠다.

*“아무래도 안 좋은 케이스의 환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빨라지고 환자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알아낼 수 있고요 나름 환자상태를 먼저 파악해서 간호를 하거나 의사에게 노티할 수 있는 것 간호의 숙련성 같은 거요 좀 더 능동적인 간호를 할 수 있다는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죠 부모님이 친척들한테 자랑할 때나 동창들이 중환자실 근무한다고 하면 대단하다고 할 때 자랑스럽죠”(참여자 6)*

논 의

본 연구는 신설 대학교병원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의 적응 경험에 관한 의미를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1년 미만의 신설 대학교 병원의 불안정한 병원체제와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걱정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막함’이라는 범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설 대학교 병원은 많은 기대와 시행착오에 대한 변수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간호사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Kim (1997)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다양한 의료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은 매우 세부적으로 분업화되어 있고 역할과 기능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어 지속적인 팀워크, 협조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Kim, 1997),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새 병원이 만들어져 가는 도중으로 인해 정보 전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공지사항이 자주 바뀌어 전달됨으로써 신규 간호사들에게 혼란을 주게 되고 매일 익히고 암기하고 배워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 또한 마음으로 준비는 하고 있었으나 막상 중환자실을 오픈한다고 하니 시작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어 막막한 심정을 호소하였다. Hickey (2009)는 신규 간호사는 병원이라는 새로운 조직문화에 융화되기 위한 사회인으로서 독자성, 의사소통능력 및 팀워크 등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구성원들과의 대인관계 형성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신설 대학교 병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신규 간호사라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겪는 상황이므로 더 큰 스트레스가 작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환자실이라는 환경의 특성상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을 때 정확한 판단과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인공호흡기와 생명연동 장비들과 같은 복잡한 의료 기구들을 조작해야 하는데, 신규 간호사들은 기존의 중환자실과 달리 이러한 신규 간호사들을 든든하게 지지해줄 경력이 있는 선배 간호사들의 프리셉터쉽 제도의 부재로, 여러 의료기구의 조작이 미숙하고 환자를 간호하는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업무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환자실의 직무환경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감시 장치와 생명연장 기계 등 다양하고 복잡한 치료기구들이 놓여 있어 환경자체가 특별하고 정도가 심각한 위급 환자나 임종 환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다 큰 책임감을 떠맡고 있어 업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Park & Kang, 2007).

Joung (2007)은 신규 간호사의 미숙한 선후배 동료관계를 속히 벗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모임을 통하여 병동 내 동료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긍정적인 전략이라 하였고, Wangenstein, Johansson과 Nordstrom (2008)는 신규 간호사들은 근무 기간 동안 간호사로서의 경력을 쌓고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가져왔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불확실하고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협력적인 근무 환경과 선배 간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업무의 특성상 매 근무마다 하게 되는 인계로 인해 신규 간호사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음을 알 수 있었다.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고, 각종 검사 및 감시결과를 토대로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간호진단을 내려 적절히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환자치료자로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Kim, 1992), 신규 간호사에게 인계 업무는 그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과 같아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도 가장 큰 중압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Maben, Latter와 Macleod-Clark (2006)는 신규 간호사가 근무를 시작하는 것은 그들의 교육적 배경이나 신규 훈련과정에 관계없이 놀랍고 힘든 경험이라 하였는데, 본 연구 대상자들도 중환자실에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고단하여 일상의 피곤함을 호소하였고, 업무미숙과 이해 부족으로 인해 타부서와의 갈등이 심했으며, 선배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무시당하는 기분과 자존심 저하로 ‘그만두고 싶은 심정’을 표현하였다. Kim 등(1999)의 연구에서 신규 간호사 경험의 중심현상은 ‘버거움’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Kim, Kim과 Lee (2001)는 임상 간호사들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로 인간관계의 부조화를 들어, 동료간, 의사-간호사간 상호존중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간호실무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신규 간호사의



미숙한 업무로 인한 의사들이나 선배 간호사들의 무시나 언어폭력들이 근절되어 신규 간호사들이 상처를 덜 받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간의 위치에 있는 수 간호사와 책임 간호사들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완성된 병원과 중환자실에 대한 애착’이라는 범주는 다른 신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적용 경험에 대해 연구한 결과와는 다른 결과였다. 본 연구의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들은 초기에 면지투성이의 공사판이었던 미완성의 병원이 전체적으로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 하였다. 중환자실 또한 아무것도 없던 장소에서 가구들이 채워지고, 지침서나 장비 매뉴얼 등 업무에 지침이 되는 모든 지침서들을 새로 만들어 가며, 여러 업무를 경험하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효율적인 업무흐름을 만들어 감에 따라 중환자실을 완성시켜 가는데 있어,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다른 신규 간호사의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결과인 병원과 중환자실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에서도 신설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의 신규 간호사들이 적응하고 견뎌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동기들인 것으로 나타나 ‘동기들의 소중함’이라는 범주가 도출되었다. Kim 등(1999)의 연구에서 병원 간호사들이 사회화 경험 중에 당황함, 힘겨움, 권태로움, 곁돌움으로 인한 버거움을 중재하는 방법으로 가족에, 동료지지, 상사의 돌봄이나 배려, 영적지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변지지의 전략으로 이용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료의 지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Hwang 등(2002)의 연구에서도 신규 간호사의 역할 적응을 돕는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은 동료 간호사라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같았다. 이는 신설 대학교 병원의 특성상 신규 간호사들이 많고 몇몇의 선배 간호사들이 있더라도 새 병원 설립 1년 이내에는 전체적인 환경이나 정책 정립에 주력할 때이므로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간호하면서 환자를 보고 있는 신규 간호사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병원이 도심과 떨어진 외곽에 지어지면서 집에서 출퇴근 하는 신규 간호사보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자취를 하는 신규 간호사가 많아 Kim 등(1999)의 연구에서처럼 가족애를 지지체계로 이용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중환자실에서의 하루하루 반복되는 근무 중에서 차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업무에 대한 성취감이 생기고, 힘든 일상을 이겨 내는 자신에 대한 대견스러움을 발견하면서 중환자실 간호사로서의 자부심을 보여 ‘자기성장에 대한 자긍심’이라는 범주가 도출되었다. 지식과 간호 기술이 향상되면 간호사로서의 자신감이 생기고 이것은 중환자실 적응에 도움이 되며, 중환자실 간호사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직으로서의 만족

감과 자부심이 크다고(Kim, 2002)하므로 중환자실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작은 부분이라도 신규 간호사가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면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조직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신규 간호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가 간호업무의 독자적 판단과 수행을 잘 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은 중환자실과 간호부 차원에서 전문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자원과 기회,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신설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의 적응 경험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그 경험에 대한 의미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개방적이고 반구조적인 질문형식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는 Colaizzi (1978) 기법에 근거하여 의미 있는 진술에서 구성된 의미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16개의 주제를 발견하고 이들을 13개의 주제 묶음으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막함’, ‘선배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근무의 중압감’, ‘그만두고 싶은 심정’, ‘완성된 병원과 중환자실에 대한 애착심’, ‘동기들의 소중함’, ‘자기성장에 대한 자긍심’의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신설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들은 신설 대학교 병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막막함과 신규 간호사들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 간호사들의 부족으로 인해 근무시마다 심한 중압감을 느끼며 그만두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병원과 중환자실을 차츰 완성해나가면서 새 병원과 새 중환자실에 대한 강한 애정과 열정을 보였고, 지금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던 동기들에게 감사하며, 힘든 업무의 반복 속에서 익힌 전문지식과 간호기술을 바탕으로 자기 성장을 이뤄내 중환자실 간호사로서의 자긍심을 느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신설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들의 긍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서 새로운 병원을 개원할 때에는 정책적으로 분주하고 변화가 많겠지만, 간호부에서 임상 경력이 풍부한 선배 간호사들의 프리셉터쉽 제도를 운영하여 신규 간호사들의 실무 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며,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들의 실무 적응 경험 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충이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멘토링 제도의 운영을 제안한다. 그리고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들의 적응에 관련된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임상 적응 단계별 간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Anderson, T., Linden, L., Allen, M., & Gibbs, E. (2009). New graduate RN work satisfaction after completing an interactive nurse residency.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39*, 165-169.
- Berg, K. (2002). *Job satisfaction among nurses working in intensive care units in Norwa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acific Lutheran University, Tacoma, Washington, USA.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8-71.
- Guba, E. & Lincoln, Y.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Sage.
- Hickey, M. T. (2009). Preceptor perceptions of new graduate nurse readiness for practice. *Journal of Nursing Staff Development, 25*, 35-41.
- Hwang, S. Y., Lee, E. J., Na, D. M., Lee, G. S., Sun, G. S., & Lee, C. S. (2002). The clinical experiences of newly qualified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8*, 261-271.
- Joung, Y. H. (2007).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role conflict between new graduated nurse and experienced nurse in ICU*.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Khoza, L. B. (2005).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adaptation of newly employed nurses to the work environment. *Nursing Science, 10*(3), 46-56.
- Kim, B. S., Rheu, E. J., Kim, K. H., Jeong, H. K., Song, M. S., & Choi, K. S. (1999).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nurse's socialization process in the hospital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 393-404.
- Kim, H. S. (2002). *Intuition experiences of ICU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Kim, J. Y. (1997). *A study on nurses' stress and job satisfaction in a new general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J. Y., & Kim, I. S. (2005). Experience of preceptorship for newly employed nurses. *Clinical Nursing Research, 10*, 75-88.
- Kim, K. B., Kim, H. S., & Lee, K. H. (2001). Clinical nurses' professional conflic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 492-505.
- Kim, N. S. (1992). *The cause of job stress and the adaptation meth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Lee, Y. C. (1997). Occupational stress of hospital workers.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3*, 1-33.
- Maben, J., Latter, S., & Macleod-Clark, J. (2006). The theory-practice gap: impact of professional-bureaucratic work conflict on newly-qualified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5*, 465-477.
- Parse, R. R. (1981). *Man-living-health: A theory of nursing*. New York: Wiley.
- Park, H. S., & Kim, K. N. (2010). Factors affecting burnout in ICU nurses. *Journal of Academy Fundamental Nursing, 17*, 409-418.
- Park, H. S., & Kang, E. H. (2007). A study on job stress and coping of ICU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810-821.
- Sandelowski, M. (1986).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Research, 8*, 27-37.
- Shin, K. R., Jo, M. O., Yang, J. H., Lee, N. I., Kim, S. M., Park, S. H., et al.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ublishing Company.
- Son, H. M., Koh, M. H., Kim, C. M., & Moon, J. H. (2001). The clinical experiences of Adaptation as a new nursing staff.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 988-1011.
- Wangenstein, S., Johansson, I. S., & Nordstrom, G. (2008). The first year as a graduate nurse: An experience of growth and development.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7*, 1877-1885.
- Yang, E. S. (2008). *ICU new nurses'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Yang, S. K. (2006). *The study on the prepared education satisfaction an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Gwangju.
- Yoon, S. H. (2002). A study on new graduate nurses' clinical experience of adaptation.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8*, 55-72.

# Lived Adaptation Experiences of New ICU Nurses Who are Working in a Newly Established University Hospital

Park, Hyoung Sook<sup>1)</sup> · Kim, Kyoung Nam<sup>2)</sup> · Kang, Eun Hee<sup>3)</sup> · Lee, Jeon Ma<sup>4)</sup> · Park, Soon Mi<sup>5)</sup>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2) 1 ICU Nurse,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Yansan Hospital

3) Part-time Lecturer,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4) Head of 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Yansan Hospital

5) Team Leader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Yansan Hospital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meaning of the adaptation experiences of new ICU nurses who were working in a newly established university hospital. The study was based on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Method:** Data were collected over 3 months through in depth interview with 6 new nurses who had worked less than 1 year in a newly established ICU of university hospital of less than 1 year located in Y city. The Colaizzi analysis method was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 themes were classified into 13 themes clusters. The 13 themes clusters were finally grouped into 6 categories, 'The endlessness of a new beginning', 'Pressure of work due to lack of senior nurses', 'Wanting to quit', 'Attachment for the complete hospital and ICU', 'Preciousness of colleagues', 'Pride in self-growth'. **Conclusion:** New ICU nurses have a difficult time due to pressures of work and lack of expert knowledge, and anxiety adds to these problems making the situation more difficult.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learned through repetition of difficult work, pride through self growth, recognition from others and good-fellowship are driving forces to overcome obstacles and with stand difficult daily work.

**Key words :** Nurses, Intensive Care Units, Adaptation, Qualitative Research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Kyoung Nam

1 ICU,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Yansan Hospital

Beomeo-ri, Mulgeum-eup, Yangsan-si, Gyeongsangnam-do 626-870, Korea.

Tel: 82-55-360-2210 C.P.: 82-10-8899-6277 Fax: 82-51-510-8308 E-mail: fairycc@hanmail.net